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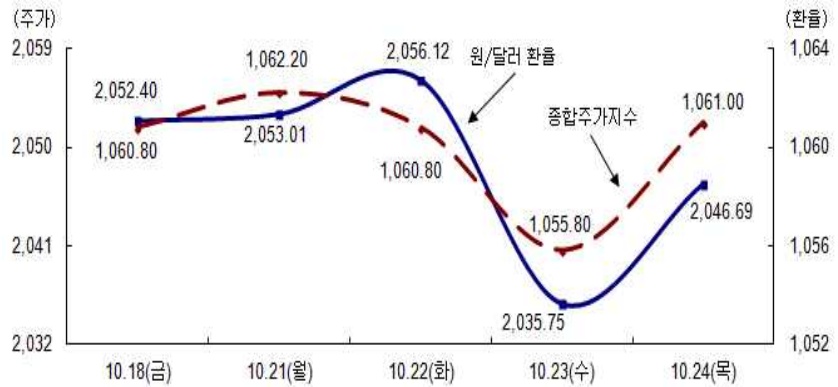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18~10.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 성 : 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 ■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아베내각은 2013년 들어 1월 11일 추경편성, 4월 4일 일본의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정책 발표, 6월 14일 일본산업재흥플랜 제시하는 등 아베노믹스 3대 전략을 완성하면서, 일본경제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 3대 전략 효과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통화량은 2013년 8월 현재 올해 목표치인 200조 엔의 약 89%선에 이르고, 엔/달러 환율도 시장 기대치인 연평균 90엔대를 훨씬 능가하는 96엔대에 이르고 있다. 둘째, 수출 및 생산비용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3개월 간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대내외 가격차가 지속 하락하면서, 일본기업의 자국 내 생산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셋째, 법인기업들의 매출액, 매출액경상이익률 등 채산성이 회복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업황지수 실적과 전망도 최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넷째, 금리와 물가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 출범 당시 우려되었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3년 10월 21일 현재 0.6%대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 0.7%대 후반 수준보다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지만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세 인상에 의한 내수 부진 장기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 국채금리 및 물가 급등 등에 따르는 경기 급랭 우려의 상존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 ■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한편, 아베노믹스로 인해 한국경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과 대내외가격차가 하락해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둘째, 2013년 1~8월까지 對日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동기비 3억 달러 증가 했다. 셋째, 일본인 방한 관광객수가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방일 관광객수가 증가하면서 2013년 1~8월까지 누적 관광수지 손실 규모가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국내 주식시장 유입 일본계 자금의 분국 회귀가 가속되었다. 다섯째, 주요 수출산업의 對日 수출 경쟁력도 부분적으로 약화되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철강과 철강제품의 對日 수출 경쟁우위가 약화됐을 뿐 아니라, EU 시장에서는 IT 산업의 경쟁열위가 심화되고 정밀기기가 경쟁열위로 전환되었다.

#### ■ 시사점

한국은 일본의 엔저현상 지속,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엔저현상 장기화 대응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강화로 일본경제 급랭 시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 및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일본과의 주요 수출시장 경쟁심화 극복을 위해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으로 새로운 대체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도 시급하다.

## 1. 아베노믹스 3대 전략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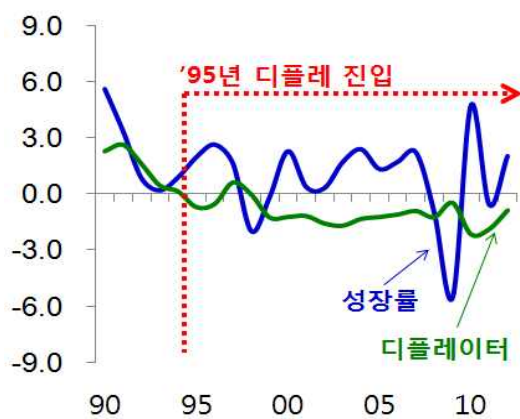
○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산업경쟁력 강화의 3대 전략을 통해 성장력을 복원시킴으로써 장기 경기 침체 극복과 디플레이션 탈출로 일본경제를 재생시키려는 전략

### -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 잃어버린 20년 :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1년 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8%, 실질 GNI는 동 0.6% 성장에 그침
- 디플레 지속 : 1997년을 제외하면 1995~2012년까지 20년 간 디플레 지속
-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심화 :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의욕 저하, 산업공동화 진행 속 신흥국 대두 등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에 따르는 전력문제 악화, 국가부채 급증 등에 의한 재정 여력 악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

- 아베노믹스 목표 :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명목 GDP 3%, 명목 물가상승률 2% 달성

< 일본 경제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 >  
(단위 : %)



자료 : 日本 內閣府.

< 아베노믹스 3대 전략과 주요 정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아베내각은 2013년 들어 1월 11일 추경편성, 4월 4일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정책 발표, 마지막으로 6월 14일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아베노믹스 3대 전략을 완성
  - 강력한 경기대책 : 2013년 1월 11일 아베내각 발족 17일 만에 13.1조 엔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빠른 재정정책 도입
  -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 2013년 4월 4일, 일본은행은 본원통화량 증대, 국채 무제한 매입 등의 내용을 담은 무제한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발표
    - 본원통화량을 2012년 말 138조 엔에서 2013년 말 200조 엔, 2014년 270조 엔으로 연간 60~70조 엔씩 증대
    - 또, 2014년까지 장기국채 보유 자산을 약 50조 엔씩 증가시키는 한편, CP와 사채 등 채권 매입 규모를 늘려 유동성 증대를 꾀함

< 일본은행의 채권 등 자산 전망 >

(조 엔)

구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장기국채	89.0	140.0	190.0
CP 등	2.1	2.2	2.2
사채 등	2.9	3.2	3.2
ETF	1.5	2.5	3.5
J-REIT	0.1	0.1	0.2
대출지원기금	3.3	13.0	18.0
기타	59.1	59.0	72.9
총자산	158.0	220.0	290.0

자료 : 日本銀行, 量的質的金融緩和の導入について, 2013년 4월 14일.

주 : 일본은행의 채권 등 자산전망의 값은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함.

- 산업 경쟁력 강화 :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속에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제시
  - 단, 정책 방향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sup>1)</sup>
  - 한편,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25~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하고, 벤처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계획도 발표

1) 日本 内閣府,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対策, 2013년 1월 11일; 日本 内閣府, 安部内閣の經濟財政政策のこれまでの成果, 2013년 6월 13일, 日本 内閣府, 日本再興戰略—JAPAN is BACK, 2013년 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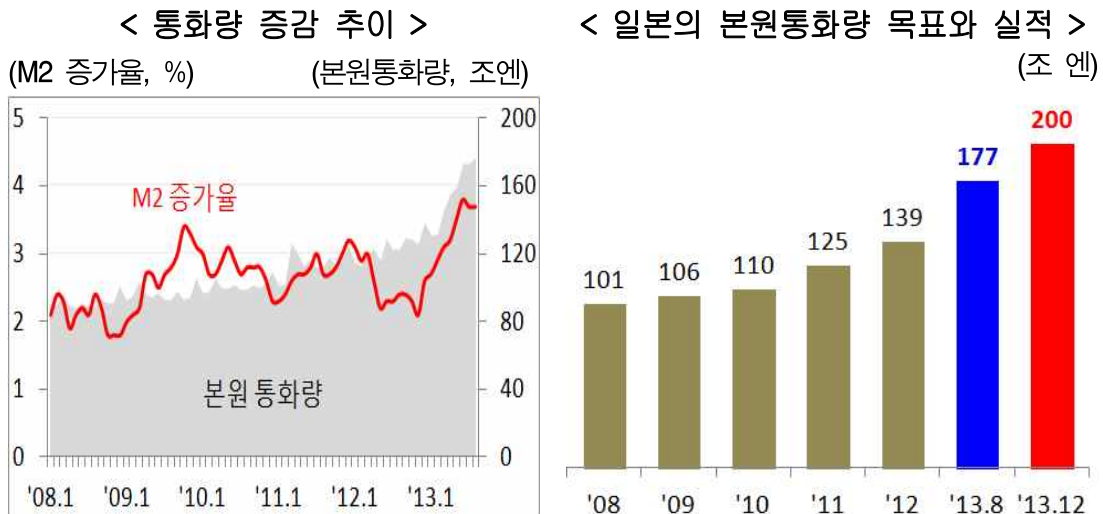
## 2.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 ① 부문별 평가

- (통화량 및 환율)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하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전략이 효과를 발휘

#### - 통화량 목표치 근접

- 본원통화량은 2012년말 약 139조 엔에서 2013년 8월 177조 엔으로 증가하여 목표치 200조 엔에 근접, M2 증가율도 동기간 2.6%에서 3.7%로 상승
- 2013년 8월 현재 전체 통화량 증대 목표인 200조 엔의 약 89% 수준에 도달



자료 : 日本銀行.

- 주 1. M2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양도성예금을 합한 광의통화 지표임.
- 2. 2013년 본원통화량은 8월까지 실적치이며, 12월까지는 목표치임.

#### - 엔저 현상 지속

- 지난 2012년 12월 26일 아베 내각 출범 시 환율은 85.3엔/달러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 10월 18일에는 97.9엔/달러로 14.7% 상승
- 일본정부는 당초 87.8엔을 목표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며,2) 민간에서는 90엔대 초중반을 기대했는데 2013년 1월 4일~10월 18일까지 평균 96.8엔으로 목표 수준을 상회

2) 日本 内閣府(2013년1월28日), 平成25年度の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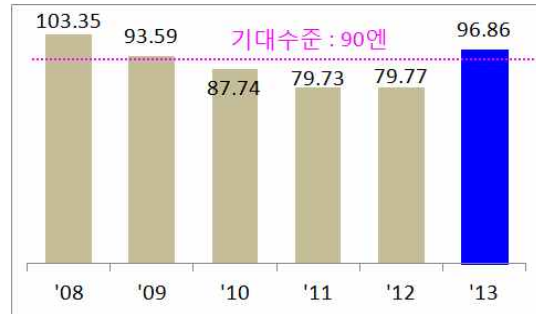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 추이 >

(엔/달러)



< 엔/달러 환율 목표 수준과 실적 >

(증가기준, 엔/달러)



자료 : 日本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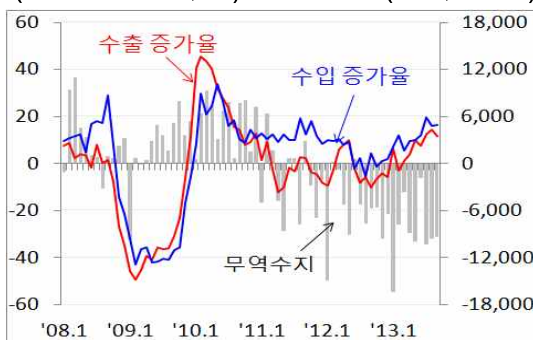
○ (수출 및 생산비용 경쟁력) 수출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 대내외 가격차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

-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 :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7~9월까지 3개월 간은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
- 다만, 원전사고 이후 연료용 천연가스 수입 증가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

- 대내외 가격차 하락세 지속 : 2012년 12월 0.91p였던 대내외 가격차가 2013년 9월 0.82p까지 하락, 일본 기업의 자국 내 생산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일본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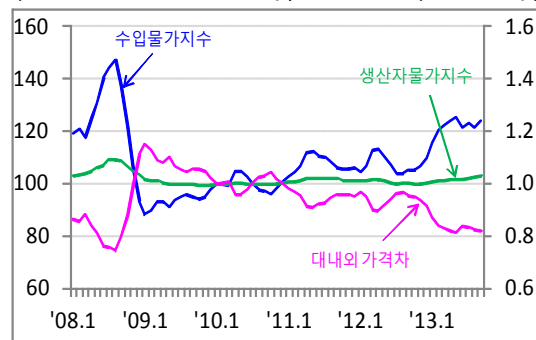
(수출입 증가율, %) (수지, 억 엔)



자료 : 日本 財務省.

< 일본 대내외 가격차 추이 >

(수입 및 생산자물가, p) (가격차, p)



자료 : 日本銀行.

주 : 대내외 가격차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국내생산이, 1 이상이면 해외생산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함.

○ (기업 경영성과) 아베내각 출범 이후 기업들의 주요 경영지표가 호전되면서 기업업황도 빠르게 개선

- 일본 기업 채산성 개선 및 민간기업 설비투자 증가 등 주요 경영지표 호전
  - 일본 법인기업 매출 증가율은 2013년 1분기 플러스로 전환, 2/4분기에는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세
  -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12년 4/4분기 4%에서 2013년 2/4분기 5%로 1%p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음
  - 한편, 기업 채산성이 개선되면서, 일본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2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3분기 연속 플러스 기록

- 기업업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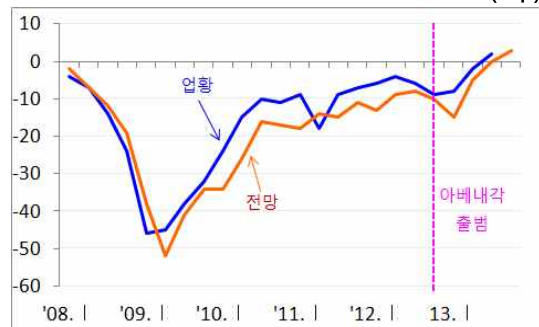
- 기업업황 실적을 나타내는 단칸지수 업황은 2013년 3/4분기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기업업황 전망을 나타내는 단칸지수 전망도 3/4분기 0, 4/4분기 3으로 향후 기업업황 개선 기대감 상승

< 일본 법인기업 주요 경영지표 추이 >  
(증감률, %)



자료 : 日本 財務省.

< 일본 기업업황(단칸지수) 추이 >  
(%p)



자료 : 日本銀行.

주 : 단칸지수는 기업들의 단기경기관측지수로, '업황이 좋다', '업황이 나쁘다'의 응답비중으로 구함.

○ (금리 및 물가) 아베 내각 출범 초 국채금리 및 물가 급등 우려가 높았지만, 국채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도 6월부터 플러스로 전환

- 우려했던 국채금리는 안정세 : 지난 2012년 12월 26일 0.784%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5월 29일 0.937%까지 상승했으나, 2013년 10월 21일에는 다시 0.626%로 하락하면서 아베 내각 출범 시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물가 안정 속 상승세

- 일본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3년 6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8월에는 0.9%로 3개월 연속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아베노믹스 목표 2%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상승세에 있어 디플레이션 극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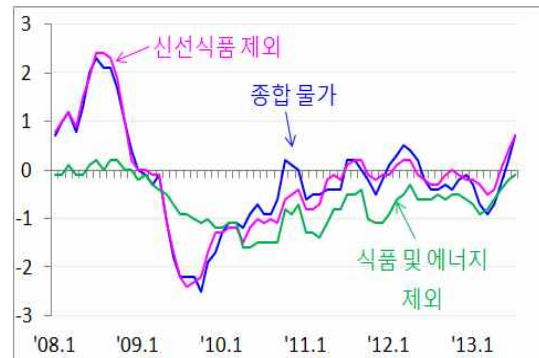
(%)



자료 : 日本 財務省.

< 일본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

(%)



자료 : 日本 總務省.

② 종합 평가와 전망

- 최근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일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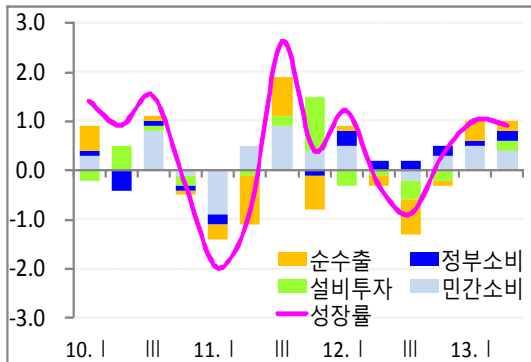
- 지난 9월 9일 발표된 일본의 경제성장률 2차 속보치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9%(연률환산 3.8%)로 1차 속보치 0.6%(연률환산 2.6%)보다 0.3%p 상승한 수준
- 이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기업 설비투자가 1차 속보치 -0.1%에서 2차 속보치 1.3%로 집계되었기 때문임
- 한편, 일본경제는 2013년 1/4분기부터 민간기업 설비투자와 순수출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2013년 2/4분기까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향후에도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2013년 8월 106.8로 2012년 12월부터 9개월 연속 100을 상회,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13년 8월 107.6로 경기동행지수를 상회하는 수준

< 일본 경제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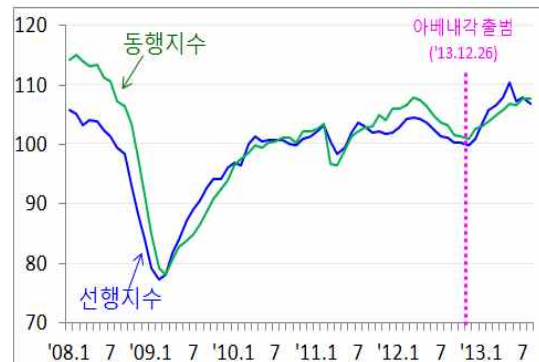
(%, %p)



자료 : 日本 內閣府.

< 일본 경기동향지수 추이 >

(p)



자료 : 日本 內閣府.

- 디플레이션 탈출은 2014년에야 가능할 전망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9%에서 2013년 2% 전후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2014년 4월에도 소비세 인상(현행 5%에서 8%) 등에 따르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1% 초반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GDP 디플레이터는 2013년에는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2014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대외부문에서는 경상수지는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무역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단,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지속, 엔화 약세 의존도 심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따르는 경기 급랭 우려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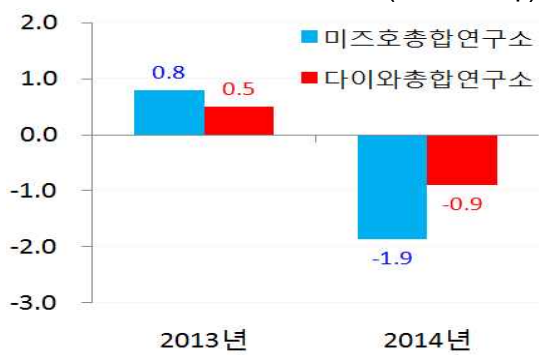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분기별 추이 >

구분	'12년	'13년	'14년
GDP 성장률(%)	1.9	2.0	1.2
소비자물가(%)	0.0	0.1	2.9
GDP 디플레이터(%)	-0.9	-1.7	1.5
경상수지(억 달러)	604	624	857
무역수지(억 달러)	-732	-566	-289

자료 : IMF.

< 소비세인상이 GDP에 미치는 영향 >

(기여도, %p)



자료 : 大和總研, みずほ總合研究所.

- 엔화 약세 지속 속 금리 안정 기대

- 주요 투자은행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에 따르면, 엔화 가치는 향후 1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주요 전망기관에 따르면 우려되었던 국채금리(10년물)도 2012년 0.78%에서 2013년 0.80%, 2014년 0.95%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기대<sup>3)</sup>

< 주요 투자은행들의 엔/달러 환율 전망(8월 말 전망 평균값) >

구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평균	101.8	104.3	105.8	109.1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1. Barclays Capital, Credit Suisse, JP Morgan 등 14개 투자은행 전망치 평균값임.

2. 전망시점은 2013년 10월 14-10월 21일임.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다소 미미할 것이나, 유치 자체가 아베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 아베노믹스의 큰 추동력이 될 것임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규모는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총 약 1.4조 엔으로, 이는 2012년 명목 GDP 475.6조 엔의 약 0.3% 수준
- 지난 9월 9일 발표된 NHK의 아베 내각 지지율은 8월 56%에서 9월 59%로 상승, 시사통신 조사결과도 지지율이 8월 54.2%에서 9월 61.3%로 급상승

<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

구분		도쿄	기타 지역	합계
수요 증가 규모	계(억 엔)	9,669	2,570	12,239
	시설정비비(억 엔)	3,557	-	3,557
	대회운영비(억 엔)	2,951	153	3,104
	관광객 및 가계 소비 등(억 엔)	3,161	2,417	5,578
생산유발효과(억 엔)		16,753	12,856	29,609
부가가치유발규모(억 엔)		8,586	5,624	14,210
고용자소득유발규모(억 엔)		4,687	2,846	7,533
고용유발 규모(명)		83,706	68,496	152,202

자료 : 東京都, 東京オリンピック招致委員會.

3) 日本総合研究所,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大和総研, みずほ総合研究所, 三菱総合研究所, 農林中金総合研究所, 三菱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ニッセイ基礎研究所, 第一生命經濟研究所 전망치 평균.

### 3.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① 아베노믹스의 영향

○ 아베노믹스는 세계경기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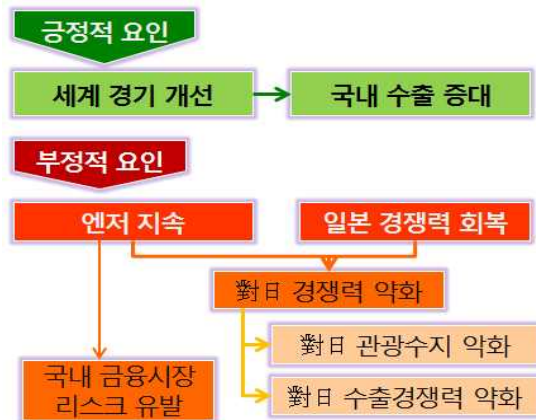
- **긍정적인 요인** : 일본경제 회복에 따르는 세계 경기 개선으로 국내 수출경기 호전 기대
  - 2012년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 GDP가 1% 성장 시 세계 GDP는 0.08% 상승, 동 2% 성장 시에는 0.17% 상승할 것으로 추정
- **부정적인 요인** : 엔화 약세, 일본 산업경쟁력 회복 등으로 對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유발 우려도 상존

< 일본 GDP 변화가 세계 GDP에 주는 영향 >  
(2012년 명목 GDP 기준)

구분	세계 GDP 증가 규모(억 달러)	세계 GDP 증가율(%)
일본 GDP 1% 성장 시	596	0.08
일본 GDP 2% 성장 시	1,193	0.17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아베노믹스의 對 한국경제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② 아베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첫째, 한국의 가격 경쟁력 상대적 약화

- 원화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 격차 확대
  -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2012년 12월 96.1p에서 2013년 8월 95.4p로 소폭 하락
  - 동기간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74.0p에서 63.6p로 하락, 양국 간 격차는 22.1p에서 31.8p로 확대

- 한국의 대내외 가격차와 일본의 대내외 가격차가 확대되면서,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국 내 생산이 불리해짐
  - 대내외가격차는 생산자물가를 수입물가로 나눈 것임, 대내외가격차가 1미만일 경우 국내 생산이 수입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
  -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는 지난 2013년 8월 1.09로 2012년 12월과 동일한 수준
  - 반면, 일본의 대내외가격차는 2012년 12월 0.91에서 2013년 8월에는 0.84로 하락, 양국 간 대내외 가격차가 확대

< 원화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 >

(2000년 월평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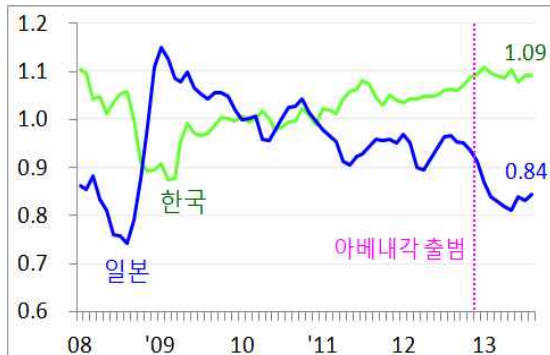
자료 : BIS.

주 : 1. Broad Indices 61개국 기준임.

2. 2010년=100지수를 2000년=100으로 다시 지수화

< 한일 대내외 가격차 추이4) >

(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자료 : 한국은행, Bank of Japan.

주 : 대내외 가격차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임.

○ 둘째, 對日 수출 부진에 따르는 對日 무역수지 적자 확대

- 한국의 對日 수출은 2013년 2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지속, 동기간 對日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
- 對日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2년 12월~2013년 8월까지 누적기준 전년동기 대비 3억 달러 증가

○ 셋째, 관광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손실 발생

-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8개월 연속 증가

4)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입 물가지수는 공산물 기준으로 (2010년 평균=100),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기업 상품 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는 모든 상품기준(2010년 평균 =100)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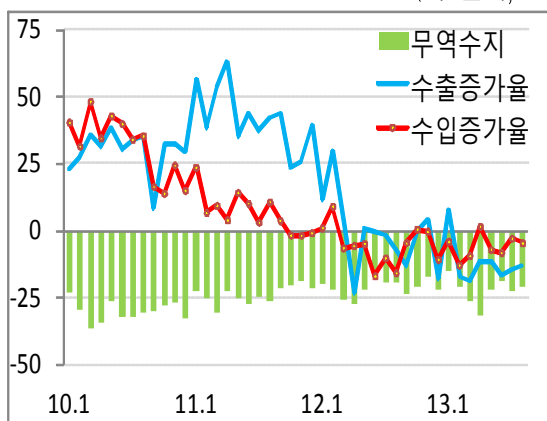
- 2013년 1~8월까지 국내 일본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8월 비해 64.5만 명 감소로 약 7억 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발생, 동기간 일본 內 한국은 관광객 수는 43.4만 명 증가하여, 약 5억 달러의 관광지출이 증가
- 전체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이는 2013년 1~8월 누적 경상수지 422.8억 달러의 약 2.8% 수준<sup>5)</sup>

○ 넷째, 국내 주식시장 일본 자금 유출 가속

- 엔화가치 하락으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살아나면서 닛케이지수는 2012년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
- 닛케이주가는 아베 내각 출범일인 2012년 12월 26일 1만 230.36엔에서 2013년 10월 23일 1만 4,426.05엔으로 약 41% 상승
- 이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주식시장에서만 2013년 1~7월까지 누적 3,970억 원 유출

< 對日 수출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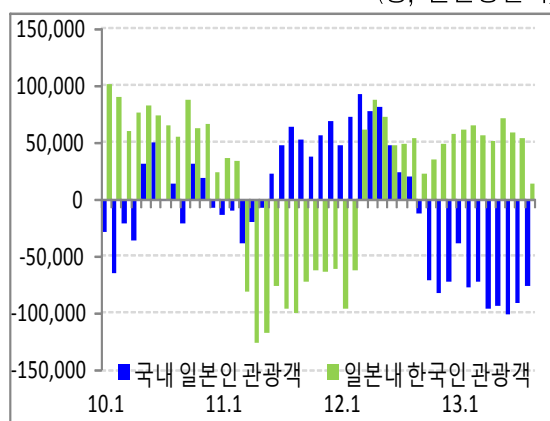
(억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 한일 양국 간 관광객 수 증감 추이 >

(명, 전년동월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日本 觀光廳.

5) 일본인 한국 관광객 평균 지출액은 1인당 1,081달러, 한국인 일본 관광객은 10만 1,600엔. 단, 한국인 일본 관광객 지출액은 일본정부의 2013년 엔/달러 환율 기대치인 87.8엔/달러 적용. 日本 觀光庁(平成24年7月期 報告書), 訪日外国人の消費動向-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結果及び分析; 문화체육관광부(2012. 12), 2011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다섯째, 주요 수출 산업의 對日 수출 경쟁력도 부분적으로 약화

- 미국 시장

- 철강 및 철강제품이 對日 수출 경쟁력 비교우위가 약화되었으며,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는 여전히 對日 수출 경쟁력 비교열위 지속

< 미국 시장 내 한일 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2.10	2.48	1.31	2.41	2.31	15.98	1.28
	일본	0.58	0.85	1.74	1.22	4.07	1.87	1.81
	격차(한국-일본)	1.52	1.63	-0.43	1.19	-1.76	14.11	-0.53
'11년	한국	2.18	2.79	1.35	1.99	2.65	24.09	0.65
	일본	0.98	1.26	1.83	1.01	3.57	1.63	1.94
	격차(한국-일본)	1.2	1.53	-0.48	0.98	-0.92	22.46	-1.29
'12년	한국	2.22	2.82	1.31	1.42	2.61	39.98	0.64
	일본	0.96	1.21	1.71	1.00	3.38	1.19	1.72
	격차(한국-일본)	1.26	1.61	-0.40	0.42	-0.77	38.79	-1.08
'13년	한국	1.96	2.61	1.31	1.59	2.66	16.24	0.62
	일본	1.05	1.13	1.68	0.95	3.39	0.98	1.67
	격차(한국-일본)	0.91	1.47	-0.37	0.63	-0.73	15.27	-1.05

주 1. 2013년은 7월까지 값.

2. 파란색은 비교우위 약화를, 초록색은 비교열위 지속 품목을 나타냄.

- 중국 시장

- 철강 및 철강제품이 對日 수출 경쟁력 비교열위가 심화되었으며, 정밀기기는 비교우위가 약화됨
- 기계와 자동차는 對日 수출 경쟁력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음

6) 한일 간 수출 경쟁력 비교 방법 :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지역 내에서의 국가 간 산업별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Comparative Advantage) 분석을 이용. CA지수  $\frac{(RX_i/RX)}{(RE_i/RE)}$ . 단, 여기서  $RX_i$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i상품의 수출액,  $RX$ 는 특정국의 상대지역에 대한 총수출액,  $RE_i$ 는 상대지역의 i상품 수입액,  $RE$ 는 상대지역의 총수입액임. CA지수가 클수록 해당 산업이 비교 대상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

< 중국 시장 내 한일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1.82	1.01	0.91	1.18	1.28	5.55	1.96
	일본	3.21	2.01	1.53	1.02	3.02	0.27	0.79
	격차(한국-일본)	-1.39	-1.00	-0.62	0.16	-1.74	5.28	1.17
'11년	한국	1.98	1.22	1.03	1.27	1.29	0.73	3.01
	일본	3.65	2.27	2.12	1.02	2.54	0.04	1.25
	격차(한국-일본)	-1.67	-1.05	-1.09	0.25	-1.25	0.69	1.76
'12년	한국	2.11	1.18	0.95	1.40	1.08	0.22	3.02
	일본	4.43	2.55	2.07	1.02	2.42	0.07	1.42
	격차(한국-일본)	-2.32	-1.37	-1.12	0.38	-1.34	0.15	1.60
'13년	한국	2.24	1.23	1.13	1.38	1.26	6.91	2.71
	일본	4.97	2.66	2.23	0.86	2.53	0.12	1.55
	격차(한국-일본)	<b>-2.74</b>	<b>-1.43</b>	<b>-1.10</b>	0.52	<b>-1.27</b>	6.79	<b>1.16</b>

주 1. 2013년은 8월까지 값.  
 2. 붉은색은 비교열위 심화, 파란색은 비교우위 약화, 초록색은 비교열위 지속 품목을 나타냄.

- EU 시장

- 정밀기기의 경우, 對日 수출 경쟁력이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
- 한편, IT는 對日 비교열위가 심화되었으며, 기계는 비교열위가 지속

< EU 시장 내 한일간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비교 >

구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08년	한국	1.07	0.52	0.96	2.52	1.41	35.61	4.15
	일본	0.19	0.64	2.20	2.12	2.42	1.01	2.74
	격차(한국-일본)	0.88	-0.12	-1.24	0.4	-1.01	34.6	1.41
'11년	한국	1.20	0.68	1.03	1.60	2.02	53.59	3.18
	일본	0.21	0.85	2.42	1.92	2.21	1.21	3.22
	격차(한국-일본)	0.99	-0.17	-1.39	-0.32	-0.19	52.38	-0.04
'12년	한국	1.27	0.81	1.06	1.70	2.23	43.67	3.71
	일본	0.22	0.93	2.50	1.98	2.32	0.35	3.30
	격차(한국-일본)	1.05	-0.12	-1.44	-0.28	-0.09	43.32	0.41
'13년	한국	1.33	0.88	1.10	1.71	2.22	51.00	3.04
	일본	0.20	0.84	2.55	2.00	2.11	0.34	3.16
	격차(한국-일본)	1.13	0.04	<b>-1.44</b>	<b>-0.30</b>	0.12	50.66	<b>-0.12</b>

주 1. 2013년은 6월까지 값.  
 2. 붉은색은 비교열위 심화, 초록색은 비교열위 지속 품목을 나타냄.



#### 4. 시사점

-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되나,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지속, 엔화 약세 의존도 심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따르는 경기 급랭 우려도 상존하므로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향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는 가속화될 전망으로 단기적으로 엔화의 추세적 평가절하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
  - 또한,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들이 가시화되면서 일본경제가 급랭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등 실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첫째,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강화로 일본경제 급랭 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원화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함
  -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의 강력한 엔저 전략은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일본경제 및 일본정부의 정책, 외환시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불안정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대응체제를 구축·운용
  -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에 환 변동보험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 컨설팅지원을 통해 환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둘째,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함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기존 수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는 물론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상품화 지원 강화를 통해 수출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을 촉진시켜야 함
  - 법인세 인상 억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취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입 가속화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셋째,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한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최소화
  -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켜야 함
  - 민간과 정부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 민간은 응용·개발을 통한 상품 및 시장개척, 정부는 핵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에 집중
    - 핵심 부품 및 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 부문의 정부 R&D 투자 지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 넷째, 일본과의 주요 수출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모색
  -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이자 산업 부문 간 복합형 산업 관련 부문에서의 국내 파일럿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 산업화의 기반을 강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출 산업화로 육성하여
  - 지역적으로 TOP 외교 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지역과, 인접한 러시아와 같은 조건 자원 부국들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추진, 또는 턴키 방식의 거대 생산설비나 SOC 사업 협력 추진 강화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 대응
  -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재검토 및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절한 투자 운용 계획을 실천해야 함
  - 한편, 기업 차원에서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이부형 (2072-6306, leebuh@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1.8	2.8	3.7	1.2	2.8	0.1	1.6	1.1	2.5	-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4	-0.3	0.3	-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1	3.8	-
중국	9.3	7.8	8.1	7.6	7.4	7.9	7.6	7.7	7.5	7.8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18일	10월 2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58	2.52	-0.06%p
	엔/달러	77.66	79.37	85.86	98.03	97.37	-0.66¥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669	1.3777	0.0108\$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400	15,509	109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562	14,486	-7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2	2.80	-0.02%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60.8	1,061.0	0.2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52.4	2,046.7	-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18일	10월 2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0.74	96.84	-3.9\$
	Dubai	104.89	92.89	107.99	105.82	105.18	-0.6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6.92	281.66	-5.2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137	294	431	298	322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6	2.2	1.4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